

5명 중 1명꼴 '4·3 희생자 보상금' 미청구

총 청구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 2962억원 수령을 4월 기준 청구권자의 22%인 1만716명 청구 안해도, 지난해 8-9월 결정된 대상자 중 1370명에 안내문을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3만8923명에 대해 2962억원이 지급됐지만 21.6%는 보상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실시해 지난 1일 1370명에게 보상금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올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에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해외거주자 702명(58억원)의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로 전체 지급 대상자 중 78.4%이다. 21.6%인 1만716명은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2023년 8월과 9월에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됐음에도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거소지 불명

자 등 688명을 제외한 1370명에게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공식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보상금 청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해외거주자들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전담인력 채용 배치, 외교부 협조로 국적이탈자의 주소 파악 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병행해 보상금 미청구로 인한 지급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

구하면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보상금 청구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도와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언론, SNS, 현수막 및 홍보물 배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 기름값 다시 '꿈틀'

도내 휘발유 가격 5개월 만에 1700원대 재진입 전국에서 가장 비싸...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기름값도 4월 들어 다시 들쭉이고 있다. 도내 기름값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데다 휘발유 가격도 5개월 여만에 리터(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7-11일)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757.6원으로 전주(1723.5원)보다 34.1원 올랐다. 주간 단위로 보면 도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넷째주(1669.6원)보다 53.9원 오른 4월 첫째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11일(1776.1원) 이후 5개월 여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불확실성 1500-1600원대에 머물던 도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30일 1715.4원을 기록한 뒤 계속 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76.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전국 평균 가격(1690.8원)과 비교하면 85.2원 높았다.

도내 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4월 둘째주 도내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38.9원으로 전주(1617.9원)보다 21원 상승했다. 주간 단위로 보면 도내 경유 가격은 3월 넷째주(1570.4원)보다 47.5원 오른 4월 첫째주에 이어 2주째 올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경유 가격은 164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전국 평균 가격(1560.5원)보다 87.2원 높았다.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이날 기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데다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등락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에 가격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소정기자

도교육청, 올해 자율학교 11개교 운영

제주도교육청은 15일 분청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신규 지정 제주형 자율학교 11개교와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과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 협약의 개정 등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에서는 성과 목표에 따른 세부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2024학년도 신규 제주형 자율학교는 11개교가 추가되며 총 81교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지정 학교는

▷글로벌역량학교 신산초, 저청초, 제주남초, 창천초 ▷디지털학교 안덕초, 한림초 ▷마을생태학교 예래초, 태흥초 ▷미래역량학교 보성초 ▷인성학교 더럭초 ▷IB 학교 장전초 등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외국어 소통능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글로벌역량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상시 협력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 특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역량학교는 1학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운영 학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꽃망울 터트린 자목련 15일 제주시 한라수목원에 자목련이 꽃망울을 터트려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의정활동비 제대로 썼는지 검증부터 해야" 참여연대 인성 반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월 150만원으로 책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내년부터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담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검토안에 대해 "그동안 목적에 맞게 활동비가 사용됐는지 따지는게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정 활동비는 수당이 아닌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 증빙이 없는 의정 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다를 게 없어 무원칙적인 인상은 의원들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현재 검직이 가능한 의원들에게 기존 수당에 더해 증빙이 필요 없는 의정 활동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게 알려지면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최근 3년 연안 안전사고로 44명 사망

제주해경, 안전관리 추진

지난해 제주지역 연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분석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 추진에 나섰다. 15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68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숨졌다. 이는 2022년 연안 안전사고(70건)로 인한 사망자 11명과 비교해 54%(6명)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에는 사고 108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원인은 추락 익수 비율

이 34%(15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관광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비해 4대 전략을 세우고 실질적인 예방정책을 마련했다.

4대 전략은 예방 중심 연안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업 안전 관리 범위 확대, 국민 공감 해양 안전 문화 확산, 현장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이다. 김재현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교육부

종합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챙겨야 하는 게 참 많죠.
그런데 혹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의 마음을
들어와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요!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마음의 건강', 챙겨 주세요